

임근춘 농어촌고창지사장 하계올림픽 유치 챌린지

[고창=임용묵 기자]



임근춘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장은 13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 기원 'GBCH 챌린지'에 동참, 올림픽 유치를 위한 도민 지지와 참여 확산을 호소했다.

임근춘 지사장은 "전북은 한국 전통문화의 뿌리로서 자연과 문화 자산이 어우러진 특색 있는 농촌마을이 많다"라며 "올림픽을 계기로 많은 국민이 새로이 조성된 농촌마을에서 즐겁고 특별한 추억을 만드시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임 지사장은 챌린지를 이어갈 다음 참여자로 임정욱 고창소방서장과 정복균 고창우체국장을 추천했다.

고창=임용묵 기자

저작권자 © 전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

고창=임용묵 기자